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지원 어떻게

고용 90% 유지, 배당금지 조건 대출+CB인수로 필요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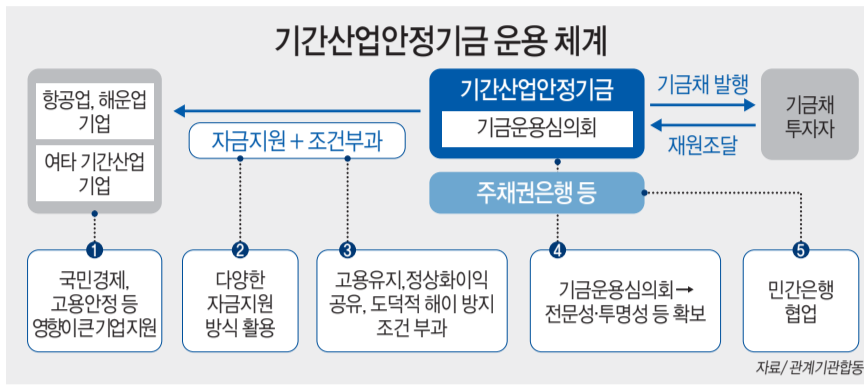
차입금 5000억, 근로자 300인 이상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 지원
모회사·계열사 지원에 활용 차단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업 기업에 투입된다.

지원받은 기업은 고용을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고소득 임직원은 연봉이 동결된다.

20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이 결정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 업종은 항공, 해운을 비롯해 국민경제, 고용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다.

요건은 국민경제나 고용안정 영향을 감안해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으로 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 의견수렴과 산업은행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지원규모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감소한 예상 매출 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이다. 원칙적으로는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포함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자금 대출은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알파(α)'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익 공유 장치로 지원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안정 유지나 주주·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조건도 내걸었다.

고용은 이달 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이 조건이다. 기간은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확인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금지원 기간 중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이 금지된다. 지난해 기준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보수가 동결된다.

지원금이 모회사나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도 차단한다. 자금대여나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6자리만 누르면 끝... 카카오페이 인증 간소화

카카오뱅크와 연동... 자산 통합관리
개인자산관리리포트, 생활패턴 확인

카카오 금융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카카오뱅크가 쉽고 간편하게 계좌를 연결해 서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와 계좌연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금융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간편 계좌연결'과 '자산관리' 연동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계좌연결에서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는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누구나 카카오페이 연결계좌 설정에서 '카카오뱅크 연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좌 연결을 할 수 있다. 계좌 연결 위해 반드시 거쳐야했던 계좌번호 확인이나 계좌 점유인증, ARS인증 등의 과정없이 카카오뱅크 인증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연결된 계좌를 통해 ▲송금 ▲결제 ▲투자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자산관리'에 카카오뱅크가 연동돼 통합적인 금융자산과 지출 분석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 앱 내 자산관리 탭에서 공인인증



서 없이 '카카오뱅크 간편연결'을 선택 후, 카카오뱅크 인증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올해 3월에 오픈한 '자산관리'는 계좌·투자·내 차·대출 등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들의 자산이 어디에 집중돼 있고 부족한지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출시 한 달 반 만에 서비스 사용자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자산관리'에 카카오뱅크 뿐 아니라 모든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연결이 가능하며, 계좌 잔고·이체 내역·카드 거래내역 등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소비패턴, 투자현황 등을 매일 업데이트해 분석하는 PFM(개인자산관리) 리포트도 오픈돼 더 체계적으로 금융생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간편 계좌연결'은 카카오뱅크 최신버전(8.8.5), '자산관리' 연동은 카카오페이 앱(1.8.5) 이상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안상미 기자

금융위,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제도 개선

어려움 겪는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 확대
회계처리 판단 적절성 묻는 질의

정부가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한 질의 회신 사례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그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도 원칙적으로 회신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회계기준원과 함께 지난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 회신제도를 운영해왔다. 질의 내용은 주로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특정사실 상황에 기초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우선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관련한 회신 사례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현재 질의회신 사례는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사례수가 적

고 결론과 판단 근거만을 요약·제시해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를 확대하고 논의 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한다.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 말에 공개한다.

금융위는 또 그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도 회신한다. 회계처리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한다.

/나유리 기자

BNK부산銀 실시간 쌍방향 소통 금융교육 진행

BNK부산은행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교육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원격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시간 원격 금융교육'은 원격 교육 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해 강사는 부산은행 본점에서,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 19일,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로 교육을 신청한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격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은행에서 하는 일'을 주제로 금융을 친근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용 통장과 거래신청서를 활용한 '통장 만들기 실습', '금융OX퀴즈' 등을 진



/BNK부산은행

행한다.

부산은행의 원격 금융교육 신청은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길 사이트 또는 부산은행 사회공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권 진로·직업이야기 ▲저축과 투자 ▲금융기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의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손보 스쿨존사고 보장강화 '하루운전자보험' KB국민銀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별금 보장을 강화하고, 필요시마다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늘어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기존 2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 별금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최소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번 상품은 KB다이렉트 '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과 함께 렌터카 운전자, 공유차량 이용자 등 단기 차량 대여 이용자가 차량 이용 기간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김희주 기자 hj89@

대용량 데이터 요금제 출시

KB국민은행 리브엠(Liiv M)은 스마트기기에서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스마트 LTE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 LTE 요금제는 태블릿, 패드, 워치 등 유심(USIM)이 장착 가능한 스마트 기기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요금제는 ▲스마트 LTE 10GB(데이터 10GB) 월 1만500원 ▲스마트 LTE 20GB(데이터 20GB) 월 1만3500원 ▲스마트 LTE 25GB+(데이터 25GB+ 일 2GB, 3Mbps 속도 무제한) 월 3만7400원 등 3가지 기본료로 구성돼 있다.

/안상미 기자

봉사하고 마일리지도 쌓는 新 사회가치 창출

신한銀, 봉사·기부시 마일리지 적립

신한은행은 임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해당 마일리지를 기부하거나 사회적 기업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름다운 마일리지' 제도는 임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 내용이나 기부금을 등록할 경우 해당 시간과 금액에 비례하는 마일리지를 개인 계정에 적립해주는 신개념 사회가치 창출 모델이다.

직원별 마일리지 계정은 신한은행 사회공헌활동 홈페이지 '아름다운 은행'에서 운영된다. 개인 계정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포인트로 전환해 네이버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서 다시

또 기부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은행' 홈페이지에서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아름다운 마일리지' 제도 아이디어는 지난 2월 열렸던 사회공헌활동 우수 직원 간담회에서 제안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옥동 행장은 이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봉사활동과 기부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탄생시켰다.

신한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 소액 기부 문화 확산,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기부 독려 문화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